

2013년 5월 (제 8호)

National Maritime Museum Webzine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바다 현장

바다는 못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바다는 한민족 번영의 기틀이며, 세계의 바다는 우리 겨레의 원대한 꿈과 이상이 펼쳐질 터전이다.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 슬기롭게 가꾸며 풍요로운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 바다를 통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생명의 바다, 풍요의 바다, 공생의 바다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바다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는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간다.

하나, 바다는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는 바다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하나, 바다는 풍요의 원천이다. 우리는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육성한다.

하나, 바다는 우리의 미래다. 우리는 바다인재를 기르고 원대한 바다경영을 통하여 세계일류의 해양력을 키운다.

하나, 바다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이다. 우리는 해양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하고 드넓은 대양에서 우리의 웅지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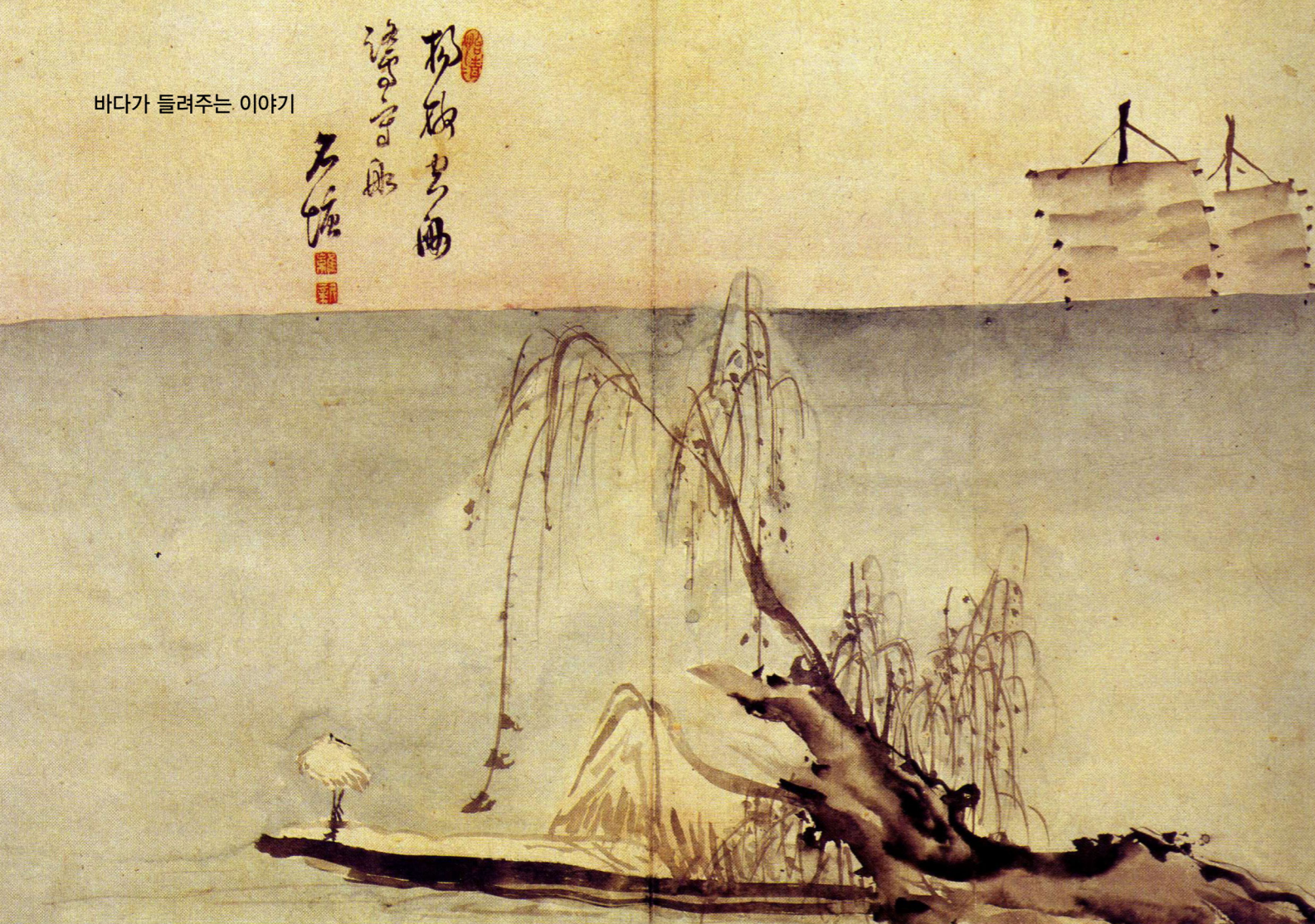
하나, 바다는 민족의 기상이다. 우리는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북돋우고 새로운 해양 문화를 일궈낸다.

하나, 바다는 평화의 마당이다. 우리는 바다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국제사회에 이바지한다.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PART 01	열린마당 문인화 속의 바다, 이유신 李維新 의 〈버드나무 아래 백로와 나룻배 楊柳鷺舟圖〉	03
PART 02	박물관 둘러보기 해양경영 5천년 이야기-1	05
PART 03	기증전시 도시어부가 都市漁父歌 사람-도시어부의 초상, 그 숭고함에 대해	07
PART 04	소장품 이야기 〈사해약진〉 휘호	09
PART 05	박물관 사람들	11
PART 06	박물관 교육행사	12
PART 07	박물관 소식	13
PART 08	강연후기	14



이유신 李維新, 〈버드나무 아래 백로와 나룻배 楊柳鷺舟圖〉. 종이에 엮은 색, 29.8×43.5cm. 개인 소장. 한국의 미12, 「산수화」하(중앙일보, 1985), 도97 인용.

열린마당

문인화 속의 바다, 이유신 李維新 의 〈버드나무 아래 백로와 나룻배 楊柳鷺舟圖〉

우선 그림을 삼등분해보자. 화면의 하단과 중단에는 모두 수면이 채워져 있고 상단에는 하늘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면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그림의 분위기가 결정될 것이다. 작가는 물기를 한껏 머금은 엷은 색으로 수면을 그렸고 하늘도 그렇게 표현하였기에 그림에는 고요한 분위기가 물씬 베어 나온다. 이렇게 과감한 담채법 淡彩法 의 사용은 화가 이유신(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화법이다. 그는 어떤 화가였고 어떻게 이런 화법을 익혔을까.

유재건 劉在建 (1793~1880)이 지은 「이향견문록 里鄕見聞錄」이라는 책에는 이유신에 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시골에 묻혀 드러나지 않은 중인 신분의 인재들이 남긴 행적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조선 후기의 중인 출신 화가이다.

이유신이 어떻게 이러한 화법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이향견문록」에 있는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석당 石塘(이유신)은 일찍이 정월 초하룻날(신위에게) 세배 드리러 와서 그 돌을 보고, 어루만지며 내려놓지를 못하였다. … 그 때 석당은 이미 늙어서 백발노인이었다.

일화의 주제는 이유신이 괴석을 사랑했다는 것이지만 화법과 관련해서는 그가 조선 후기 사대부 화가인 신위 申緯(1769~1845)와 교류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가 언제였는가는 여러 정황을 통해 대강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에는 이유신이 1753년에 궁위령 宮尉令이라는 말단 직책에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빨라야 20세를 전후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신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었다. 신위의 출생 연도를 감안하면 둘 간의 나이 차가 40세 이상은 족히 될 것이다. 그러면 일화 속의 교류는 언제였을까. 만일에 신위가 사망할 즈음이라면 이유신은 110세가 넘게 된다. 지금도 백세를 넘기기 어려운데 조선시대 때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중반 사이에 일어났다고 해도 별로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일화의 내용 중에 재미난 부분은 백발의 노인이 된 이유신이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사대부 선비를 찾아 가 새해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보통 친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다.

이렇게 기록 속 일화의 시기와 이유신과 신위가 상당한 친분을 가졌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이유신의 화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파악해보자.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의 조선 화단을 살펴보면 이유신과 유사한 기법을 구사한 화가들이 있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화가는 강세황 姜世晃(1713~1791)이며, 신위는 그의 화풍을 계승한 제자이다. 그리고 이유신의 그림 속에 있는 나무는 이들과 깊이 어울렸던 김홍도 金弘道(1745~19세기 초)의 나무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표현이 엷비슷하다. 이즈음 되면 이유신이 이들과 동일한 회화 유파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담채법을 자유롭게 구사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그림에는 이유신이 문인화의 소재를 넓혔던 사실이 드러나 있다. 수평선 너머에는 배의 돛만이 보이고 있어서 마치 잠시 뒤에 배의 전체 모습이 나타날 것만 같다. 이유신이 이렇게 독특한 구성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상당히 사실감이 가미된 구성이므로, 그가 어떤 풍경을 유심히 본 뒤에 이 그림을 그린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느 동양화라면 수평선 너머에는 먼 산이 자리할 뿐, 이 그림 같은 식의 구도는 찾을 수 없다. 사실 이렇게 수평선만이 보이는 물가는 바다가 아니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바다라고 하기에 너무나 수면이 잔잔해서 마치 호수를 연상케 한다. 더구나 화면의 하단에 자리한 나룻배와 버드나무는 주로 강가나 호숫가를 그릴 때 단골로 그려지는 요소이다.

살펴보았듯이 그림의 구성은 뭐라 설명하기 애매할 정도인데, 작가의 의도가 깊이 개입된 결과이다. 이유신은 이 그림에서 동양화의 전통적인 주제인 한가로운 강호 江湖의 장면 속에 망망대해를 본 기억을 결합시켰다. 중인과 사대부를 포함한 조선의 선비들이라면 늘그막에 학문을 닦고 자연을 벗 삼아 여생을 보내려는 바람을 가졌고, 이를 문학과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강과 호수가 있는 시골을 즐겨 표현하였다. 이유신은 강과 호수 외에 바다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문인화의 구성요소로 만들었던 몇 안 되는 조선의 화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유신은 이 그림을 통해 한가한 선비의 삶을 꿈꾸었음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림 속에 그는 없고 오로지 백로만이 자리하고 있다. 한가롭다기보다는 적막하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유는 이유신 만이 알 것이다. 그는 “버드나무 아래 텅 빈 물가, 백로만이 배를 지키네”라는 시를 적으면서 그림을 마무리 하였다.

박물관 둘러보기

해양경영 5천년 이야기-1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사시대부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해안가 곳곳의 패총 유적에서 발견된 조개 장신구, 고래 뼈로 만든 접시, 물고기 뼈 등 다양한 유물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연안어업이 성행했음을 보여 준다. 이 시기에는 이미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에 남해를 통해서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몽토기, 흑요석제 석촉, 사누카이트제 작살, 석시 등이 남해안 지역의 패총유적과 쓰시마·규슈 지역에서 발견되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 전경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어업은 더욱 발달한다.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각종 물고기와 고래, 그리고 고래잡이 배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삼한시대에는 한·중·일 삼국 간의 해상 교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진한·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까지 수출되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각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해양을 매개로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역사를 이어왔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정립된 삼국시대에는 각국의 항쟁이 점차 치열해져 국제적으로 유리한 입지 확보와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중국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북부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 때문에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백제와 신라는 해로를 이용하였고 이는 해상교통발달의 계기가 되었다. 부안 죽막동 유적에서는 백제 및 가야의 각종 토기와 중국, 일본의 유물이 출토되어 이곳이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국제적 제사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가야는 바다에 접해있는 지리적인 이점과 풍부한 철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 및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또한 낙랑과 일본과의 원거리 교역 중개기지로써 큰 세력을 떨쳤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우리 역사상 해양문화의 전성기 로, 단순한 교역을 넘어서 외교사절과 승려, 학생 등 왕래가 빈번하였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과 교역하여 아시아 문화가 한데 만나는 국제적 사회의 밑바탕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 바다를 이용한 교역의 중심지가 장보고 張保臯 가 세운 청해진 淸海鎮 이었다. 청해진은 섬 전체를 이용하여 성을 구축하고 바다를 천연의 해자로 활용한 매우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발굴 조사 결과, 해안의 나무 울타리와 성벽, 건물터와 우물, 제사유적이 확인되었고,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2,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장보고는 일본에 회역사 廻易使 를, 당나라에는 대당매물사 大唐賣物使 를 파견하여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신라-일본을 잇는 삼각무역을 실시하였다. 청해진은 군사와 무역 체계를 갖춘 군·산·상 軍·産·商 의 복합체로, 일본 하카타 博多 와 중국의 초산, 추저우, 양저우 등지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다. 청해진의 역할은 동남아, 인도 항로와 동아시아 항로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신라와 일본으로 연결되는 세계무역, 즉 해상 실크로드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상 문물 교류에 이바지하였다.

고려시대는 국제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로 고려인들은 중국 송나라에 대규모로 진출하였다.



중국 적산법화원내 장보고상

당시 송은 고려 사신과 고려 상인들이 통과하는 연로 沿路 에 고려관 高麗館 을 세워 숙식을 제공할 만큼 이들을 우대하였다. 일본의 상인들도 김해를 통해 고려에 들어 왔으며, 고려는 현재의 오키나와인 유구국과도 교류하였다.

고려는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류하였는데 그 대외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국제무역항 벽란도였다. 흑산도에서 벽란도에 이르는 서남해 도서·연안지역은 사신선과 상선들이 잠시 머무르면서 안전한 항해를 기리는 제사의식을 거행하던 거점 항구가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제 유물이 발견된 전남 신안 해저 출토품은 국가 간의 교역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도서 연안지역에서 해양활동이 활발하였다. 연안을 통해 전국 조창의 세곡을 운송하던 조운제도는 조선시대까지 350여 년간 운영되었고, 충남 태안의 대섬, 마도 출토 유물은 활발했던 고려시대의 해운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원의 침략에 끝까지 대항하였던 삼별초가 여러 도서 지역을 옮겨 다닌 것은 바다를 두려워한 원군의 약점을 이용하고 또한 전쟁물자 유통로를 장악하기 위해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증전시

도시어부가 都市漁父歌

영도 하리 어촌계의 바다와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전은 해양다큐멘터리의 기록과 보존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전시의 소주제인 '공간·사람·하루' 중에서 '사람'에 대한 작가의 논고를 지면을 통해 전달한다.

사람

도시어부의 초상, 그 숭고함에 대해

사진의 범주에서 정밀하게 말하자면, 인물사진과 사람사진은 엄연히 분리되는 별개의 지점이다. '사람을 찍은' 혹은 '사람 그 자체에 주목한 사진'을 인물사진이라 부른다. 사진다큐멘터리에서 초상은 '공간'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보여주기'로 자리 잡았는데, 사진가는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국가적, 개인적,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의 사람을 응시하고 카메라의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사진 밖의 사람과 강력한 교감을 만들어 낸다. 물론 하나의 인물사진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탐구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됐든 한 가지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주목'과 '긴장'이다. 사진으로 남겨진 초상에는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과 심리가 담기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능하게

가능하게 한다. 그런 과정은 '질문'과 '탐구'를 통해 나타난다. 도시의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질문과 탐구'는 이번 전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진에 남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한편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질문하게 된다. 아마 도시에서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진한 구릿빛 얼굴을 통해 인간의 강인한 존재성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연예인처럼 화려하고 예쁜 모습이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묵직한 감동과 근원적인 아름다움의 이유가 궁금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는 도시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크게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얼굴이나 마찬가지다. 사진, 그 중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자 하는 바탕에는 "우리인류人類는 어디서 왔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이 깔려있다. 그리고 특정 대상을 통해 우리는 누구이며, 삶을 통해 구체화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번 작업의 경우에는, 해양문화를 통찰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어부가 가진 중요한 기억과 존재의 증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가 컸다. 어떤 측면에선 공간보다 사람이 훨씬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도시어부의 기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현대사진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을 응시하는 방법에 대한 선구적인 도전은 20세기 초 독일의 사진가 아우구스트 잔더 August Sander에 의해 이미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잔더는 1929년에 독일인을 대표할만한 인물사진 작업인 '우리 시대의 얼굴Antlitz der Zeit'를 공개했는데, 각 분야에서 일하는 독일인 60명의 사진을 통해 당시 독일인에 대한 기호, 문화, 인상, 인종, 사회, 문명, 경제적 표상과 가치를 훌륭하게 제시했다. 잔더가

선택한 인물은 철저하게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농부, 목동, 일하는 엄마, 실직한 선원, 화가, 작곡가, 호텔리어, 선교사 등이다. 잔더의 사진을 바라보는 비평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인간의 아름다움이 전해진다."는 평가가 늘 따른다. 또한 잔더의 사진에는 피사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촬영한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에 공감과 존중의 시선이 함께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라는 방식을 통해 남겨지는 모든 얼굴에는 숭고함이 서려 있다. 광고를 비롯한 수많은 상업적 기재와 연계되어 포착된 얼굴에는 그런 숭고함이 없다. 오직 돈을 원하는 은근한 미소만 있을 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잔더의 얼굴과 도시어부의 얼굴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둘의 작업에서 포착된 얼굴은 자신들의 처지에 열중할 뿐이지 사진이나 카메라에 대해 열광적일 만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는다.

도시어부의 초상을 담는 과정에서 견지한 입장은 '존중의 시선'이었다. 기록이라는 수단으로 볼 때 타인의 공간을 잘라 내는 상당히 폭력적인 양상을 가지는 것이 카메라라는 매체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다. 때문에 피사체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진이 된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 삶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주인공은 늘 그랬듯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다. 도시의 어촌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사람의 형상이 그리는 현실과 그들의 초상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식의 과제로 남겨진다. 작고 심심한 역사가 없다면 크고 장대한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 가장 평범하고 심심한 초상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 부산의 구성원인, 한국의 구성원인, 인류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숭고한 모습을 얻어가길 기대한다.

박승근(저널리스트)





〈사해약진〉 휘호 / 1977년 / 대한해운(주) 기증



박정희 대통령 표창 / 1977년 / 대한해운(주) 기증



제1회 해운의 날 기념식 원본사진 / 1977년

소장품 이야기

〈사해약진〉 휘호

해운의 날은 1960~7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해운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77년 3월 최초로 제정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1회 해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휘호 “사해약진”을 썼다. 1977년 3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이 휘호에 대한 에피소드가 흥미롭다.

“항만청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며칠 전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 휘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결과 기념일 바로 전날 「四海躍進 사해약진」이라고 쓴 박 대통령의 휘호가 내려와 강창성 항만청장을 비롯한 모든 청직원들이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기뻐했는데 「四海躍進」이라는 휘호가 뜻하는 의미를 선뜻 알아내지 못해 휘호가 담고 있는 뜻을 해석하기 위한 의견들이 百出 백출, 즐거운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항만청 직원들이 박 대통령의 휘호가 함축하고 있는 높은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초 항만청에서는 해운발전과 해운인의 의지를 상징할 만한 몇 개의 표어를 올렸는데 막상 내려온 휘호를 보니 해운계에서는 낯설은 「四海躍進 사해약진」이었고 「四海」의 뜻을 잘 알 수 없었던 것.

항만청에서는 이 「四海」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한문학자들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고전을 직접 들추고 군관계 원로급들에게도 해석을 부탁하는 등 분주한 몇 시간의 노력 끝에 「四海」의 의미를 알아내게 되는데 성공.

중국 고전에 들어있는 「四海」의 뜻은 천하를 말하고 있으며 천하는 곧 세계를 의미하고 있어 사해약진은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해운의 미래상과 당위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또 한 번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뒷얘기.”

제1회 해운의 날 기념식은 1977년 3월 12일 국립극장에서 최경록 교통부장관, 강창성 제1대 해운항만청장과 해운관계자들이 모여 개최되었다. 3월 12일은 해운항만청이 개청한지 만 1년이 된 날이기도 하다. 해운의 날은 국가경쟁력의 큰 원동력인 해운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념행사로, 기념식에서 해운업계 중 유공자 78명을 가려 동탑산업훈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였다. 대한해운(주)의 당시 이름인 코리아라인은 해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해운의 날은 1995년 19회 기념식을 마지막으로 1996년부터는 해양수산부 발족과 함께 ‘바다의 날’로 흡수되어 기념하였다. 바다의 날은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양개발·해운항만·해양환경·수산진흥·해양안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해 해양산업 종사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는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제정되었다.

올해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 18번째 기념식을 갖는 날이자, 새롭게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첫 바다의 날로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지난 날 사해약진四海躍進의 바람처럼 침체에 있는 해운과 조선, 수산 등 해양 산업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가 신 해양강국으로 약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박물관 사람들

순백의 하얀 벚꽃이 한바탕 온 천지를 뒤덮고 요란한 봄맞이를 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수줍은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싱그러운 계절 봄이 왔습니다. 처음 국립해양박물관이라는 곳에 발을 내딛던 작년 5월처럼...

벌써 1년,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사에 다니고 있던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저희 부부는 박물관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40여 년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아무 연구도 없는 낯설기 만한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낯선 곳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박물관의 개관과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빴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물관에서 저희 부부는 전시디자인 업무와 시스템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의 전시디자인이란 조명과 시각적인 그래픽 등 기술적, 형태적인 전시기법을 통해 관람객에게 보다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를 돕기 위한 실행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공간적 전시기법 이외에도 관람객의 시선이 닿는 박물관 내·외부의 사인물 및 홍보물 등의 시각적인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야근과 밤샘도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도 빼놓을 수 없네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저의 손길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박물관에서의 시스템관리란 전시장 곳곳에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모형물 등의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장비 및 음향 장비 등의 유지관리업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관람객이 체험하는 장비는 그만큼 고장이나 파손이 많고 잠시라도 수리를 위해 전시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시장내 장비 및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체험전시물을 즐겁게 체험하고 관람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입니다. 한 직장을 다니는 커플 1호로서 부담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가 배우자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이 쓰였고,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공과 사를 구별하여 서로를 객관적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아이도 없는 터라 눈을 떠서 잠이 들 때 까지 서로의 화제는 회사와 박물관 이야기로 끝이 없기도 합니다.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하루 일과를 얘기하기도 하고 박물관의 에피소드나 고민거리를 나누는가 하면 야근을 할 때는 든든한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도움과 힘이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미래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여행.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과 어르신을 부축하고 옛날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는 가족들, 그리고 연인들, 그들의 얼굴엔 과거에 대한 회상, 기쁨,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를 그리는 행복한 표정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모두가 즐겁습니다. 꽃들은 만개하고 봄 햇살은 점점 더 강렬해 지고 있습니다. 5월, 박물관에서의 가족시간여행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멀리 오륙도가 보이고 운이 좋은날에는 영도해녀의 물질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눈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해안데크를 유유히 걷노라면 이곳이 어느 외국 휴양지 부럽지 않기도 한답니다. 저희 부부도 바람 없는 어느 오후 업무에 지쳤을 때 박물관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여유를 5월에는 누리볼까 합니다. 소중한 행복의 근원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고 작은 행복을 마음에 담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부부도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박중선(국립해양박물관 시스템관리팀장), 이진영(전시디자인팀장)



박물관 교육행사

5월 Happy Weekend 감감한 바다속 해미래 탐사여행

매주 토요일 14:00~15:30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프로그램으로 심해탐사 로봇 해미래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나라 심해탐사과학기술의 발달과 심해생물, 심해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의 만남(화상통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00~11:30 / 전체 / 20명 / 4층 전시실(해양과학) / 현장선착순접수 / 무료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극지연구소에 대해 알아보고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프로그램 해양과학다큐감상교실

5월 25일~6월 15일 매주 토요일 11:00~12:30 /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 30명 / 제2강의실 / 인터넷 및 현장접수 / 무료

주 5일제 수업으로 변경된 학교운영에 맞춰 주말에도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해양과학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흥미 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



바닷가에서의 숨,

Life at Badang[sea], and Sumbisori[breathing sound]



그리고 숨비소리

2013.03.26 ~
2013.06.16

국립해양박물관 4층

2013 기증사진전

바다에서 포착한 삶의 순간들

도시어부가展

The Epic of Fisherman in City

2013. 4.12 ▶ 5.5
기획전시실(2F)